**현대교회들을 뒤덮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편견**

**- 변승우 목사**

****

현대교회들을 뒤덮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편견

-변승우 목사-

1요030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게 허용하지 말라, '법적 깨끗함'을 행하는

그는, 그분이 법적으로 깨끗하신 것과 똑같이 법적으로 깨끗하니라.

1요0308. 죄(빗나감)를 저지르는 그는 마왕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왕은 처음부터 죄를

지음이라,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지셨으니 곧, 그분께서 마왕의 일들을

무너뜨리려 하심이라.

1요0309.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누구든지 죄(빗나감)를 저지르지 않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음이라,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남이라.

1요0310.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왕의 자녀들이 분명해지느니라,

 '법적 깨끗함'을 행하지 않는 누구든지,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치 않는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0609. 법적으로 불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남창(포르노스:남창,난봉군,방탕자,매춘부)들도,

우상숭배자들도, 간음자(모이코스:정을 통한 자, 변절자,간음자)한 자들도, 유약한(말라코스:

부드러운,좋은,유약한)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자신들을 능욕하는 자들도,

고전0610. 도적들도, 탐하는 자들도, 술 취하는 자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목사님을 성경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담임목사님이라도, 초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절대로 목사님을 성경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 신앙고백을 하든, 방언을 하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만일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미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신자든 방언하는 자든 예언하는 자든 병 고치는 자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불의 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남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죄짓고 싶으니까, 대강 대강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진리를 제대로 분별 하지 못하고 속이는 목사들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설교에 속는 신자들도 악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저는 뭇 신자들의 악함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미혹된 목사들도 악하지만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 신앙고백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엉터리 설교에 속는 신자들도 심히 악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둡니다.

영생의 반대가 썩어질 것이므로 그것은 멸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멸망합니다.

성령을 좇아가야지 육체를 좇아가면 안됩니다.

갈라디아서 5:17-21 절 말씀다 아시죠?

육체를 따르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엡0505.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앎이니 곧, 매춘부를 사는 자도, 불결한 자도, 우상숭배자인

탐욕스런 자도 그리스도의 왕국(바실레이아)에서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계승물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엡0506. 아무도 너희를 속이 빈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청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엡050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참들이 되지 말라

이곳에 보니 "헛된 말" 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헛된 설교들입니다.

설교는 왜 합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왜 합니까?

회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설교들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큰믿음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전1502. 만약 내가 너희에게 전파(선포)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에 담아두고 있다면,

만약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또한 구원 받느니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되게 전하고

헛되게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회개하라고 했지 언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들이고

믿어 순종케 되는 믿음이지,

언제 행함과 상관없는 사변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그런 것처럼 가르칩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헛된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엡 5: 6-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된 말들 즉,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지금 기독교가 구원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만 조금 다르지 자신도 똑같이 설교 하면서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구원파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구원파 목사들이 수두룩 하지 않나요?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 신앙고백만 하면 천국간다, 그게 구원파 아닌가요?

구원파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세윤 박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김세윤 박사는 한국교회가 왜곡한 칭의론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왔다고 했다.

김박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같은 '사영리'다.

사영리를 보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다.

김 박사는 '사영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바 없다' 고 했다."

http://cafe.daum.net/Bigchurtch/l1S/2913 (참조)

또 제가 존경하는 강금성 목사님도 [변질된 기독교] 라는 책에서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원파 (기쁜소식 선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막말로 해서 구원파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처럼 믿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글 없는 책' 이나 '전도폭발' 에서 제시하는 복음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고 선포하는 구원론은 구원파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지만

현대의 교회는 결단코 구원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원파의 망령이 교회 내에 아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

강금성 <변질된 기독교> 서울 : 큰믿음출판사,2011.P.46.

이 구원파식 구원론은 현대 대부분의 교회가 선포하고 믿는 구원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구원론에 명백히 미혹된 것입니다. "

강금성 <변질된 기독교> 서울 : 큰믿음출판사,2011. P.94.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주의입니다.

즉, 로이드존즈 가 말한 산데만주의 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킬수 있는 그런 믿음 입니다.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변적인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착각 한 것입니다.

롬 10: 9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눅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건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 입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구원파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구원파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미혹입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베니힌이 TV에서 유명한 신학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한참 토론을 하다가 베니힌과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14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개 했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한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믿었으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해지면 다입니까?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마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자, 그는 구원되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만약 이 구절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끝까지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견뎌도 지옥에 갑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끝까지 견뎌 보아야 지옥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도 버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신학박사가 모릅니까?

왜 신학교 총장들이 모릅니까? 왜 원로 목사가 모릅니까?

왜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모릅니까?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80% 이상의 목사들이 떠들어댑니까?

그러니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기독교의 명칭이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먹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불교와 가톨릭은 혐오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를 혐오하고 못 밟아서 난리입니다.

그 배후에 친북좌파의 공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중 하나가 구원론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미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숭실대 신약학교수인 권연경 교수님이 목회자 포럼에서

"한국 교회의 도덕적 무기력과 구원론적 혼란"이란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 교수님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도덕적 실패를 구원론의 오해로 분석" 했습니다.

또한 순복음 목회신학대학원 학감을 지낸 김경규 교수님도

"개독교" 비난은 잘못된 '구원론' 때문" 이라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전투구의 싸움터로 비춰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과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교회는 더욱 어두워져갈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고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역시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미국 풀러신학대학 신약한 교수, 교수개혁실천연대 고문) 는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2011년 11월7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사경회

자리였다.

-한국 교회 부패의 원인이 되어 버린 바울의 '칭의론'

494년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바울의 칭의론(롬1:17) 을

근거로 비판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바울의 칭으론, '이신칭의(以信稱義)'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는 종교개혁후

개신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교리였다.

김세윤 박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끼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김박사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개독"이니 "먹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했다. ...

김박사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주일성수, 헌금, 전도다.

이 세가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후상급'교리를 만들었다.

그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중세로마 가톨릭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릇된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는 영혼의 올무입니다. 함정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바울보다 훌륭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바울이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목사들에게는 일곱배나 더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니 목사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힘도 점점 커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교단들이 정치적이 되고 돈선거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66장에 보면, 하니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린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사66:2> 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 <시119:38>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목사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들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미국의 심판에 대해서 꾼 꿈을 아는 분 계십니까?

시드로스의 "It's Supernatural'에 출연하여 간증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시드로스: 이번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은 영적 체험 중에서 이번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릭 조이너: 이번 꿈은 제가 체험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계시나 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생생했습니다.

그 꿈의 메시지가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제 영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현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며, 그 꿈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의 저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꾼 이 꿈처럼 심각하게 느껴지거나 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드로스: 미국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릭조이너는 최근에 모라비안 계곡에 가서 중요한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긴박한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릭, 그 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릭 조이너: 비교적 짧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방들은 미국의 각 분야들을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지리적인 곳들과 문화들 그리고 여러 산업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안 이곳 저곳에서 작은 불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불이니 그냥 발로 꺼버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길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불길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람들과 집 밖으로 나가려고 봤더니, 집 밖은 군사기지였습니다.

제가 다시 집안을 돌아보니 작은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을 발로

밟아버리려고 다가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의 작은 구멍으로 집안 바닥을 보니, 그 안의 모든 것들이 화염에 가득 싸여서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의 기반은 온통 불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온갖 서류들이 다 들어있는 '컴퓨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서둘러 네 아내와 소방호스를 붙들어라!'

그순간 저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온통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그 집은 미국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로 아내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내만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 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생수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능한 많이, 그렇게 불타고 있는 그 집의 기초에다가 붓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드로스: 미국의 기반이 그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에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주님을

의식하는 대신에 성도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하며, 희석시킨 말씀만을

전해왔습니다.

릭조이너: 우리는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리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정치가와 진정한 리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요약을 하면, 릭 조이너가 꿈을 꾸었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조그만 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마루의 구멍을 통해서 보니 속에서 불이

 활활~~~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불을 꺼야 되겠다.' 고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릭 조이너 목사님의 사모님이 호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로 물을

발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는데 "네 아내는 교회를 뜻한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파멸로부터 구원할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뿐이다. 그것은 물을 뿌리는 것이다.

즉 희석되지 않은 지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진리가 심각할 정도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래함,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릭 워렌 등 유명한 목사들이 앞다투어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미국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것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진리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게 만들고 견인의 교리를 가르치고 성령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연예인들이 토크 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부터 고쳐야 합니다. 노닥거리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자니 윤 쇼 합니까?

미국의 재앙은 설교 때문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설교 때문에 망합니다.

미국이 살 길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목사들이 희석되지 않은 순전한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먼저, 무지해서 못 전하는 목사들이 다수인데, 이런 경우 소경이므로 목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덜 나쁩니다.

이들보다 더 나쁜 것은...알지만 성도들이 떠날까봐 못 전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도들 떠날까바 걱정하는 것 봤습니까?

멀쩡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다 보며

제자의 조건을 가르쳐 주고 똑바로 따르든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상대가 부자인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6장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날 때,

가만히 있는 열두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어서 성도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성도 떠나는 것이 무서우면 어떻게 바른 설교를 합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사랑으로 포장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곡사포가 아니라 복음의 직격탄, 진리의 직격탄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 겔36:24~28 -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까?

"맑은 물" 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물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말합니다. (시12:6)

고후0217. 이는 우리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아니함이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느니라, 대신에 진솔함(엘리크리네이아:명료,순수,성실)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고후0402. 교활함 가운데서 걷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도

않으면서, 대신에 진리(진실 / 알레데이아:진리,참되다,진실성,사실)를 분명히 나타냄에 의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자신들을 낱낱의 사람의 양심에 천거하면서. 부정직의 감춰진

것들과 의절했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설교)을 의미합니다. 이런 설교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르 섬김에서 정결케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엡0525.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 아내들을 또한 사랑하라.

엡0526. 이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냄으로 교회를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

시키시고 깨끗이 하여,

엡0527. 그분께서 교회를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어떤 것도 없는 영예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내놓아, 교회가 거룩하고 결점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강단에서 진리가 순수하게 회복되어야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뿐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가 진리의 회복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 회복은 참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마귀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가 지적한대로

진리 회복을 힘쓰는 사람들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 이 되고 가장 심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회복은 성경으로 교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인데,

교단들과 목사들은 어리석게도 성경이 아니라 각 교단의 불완전한 교리를 잣대로 삼아

이단 시비를 벌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단순히 영성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회복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으로 몰리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진리 회복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백석 교단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만 취소했으면 이단시비는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석 교단에서 두 해 동안 조사하여 제게 요구한 것이 이것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번복하지 않은 것은

진리 회복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리 회복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 갈1:10 -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일3:7~10-

"미혹" 중에서 /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